



# Coyoacan 헬기 추락, 탑승 한국인 부부 관광객 사망

지난 일요일(4월14일) 오후 5시경, 코요아칸에서 헬기로 도시관광에 나섰던 한국인 2명이 엔진고장을 일으킨 헬기가 추락하면서 모두 사망했다.

Bell Model 206B 4인승 기종의 헬리콥터로 알려진 사고 헬기는 코요아칸 시장실의 Avenida del Iman에 위치한 주차장에 추락하였으며 추락과 동시 화재가 발생하면서 주변지역이 한동안 소란이 일어났었다.

사고 당시 헬리콥터에는 아르만도 세르반테스로 알려진 조종사 1명과 승객 2명이 탑승했는데 2명의 승객 모두 한국인으로 알려졌다. 조종사를 포함해 3명 모두 사망했다.

사고와 관련, CDMX의 시민 보안 장관인 Pablo Vazquez Camacho는 사건 현장이



Coyoacan 시장 사무실의 Avenida del Iman과 Avenida Delfin Madrigal에 추락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밝혀진 사고원인은 엔진고장으로 인한 '작동불능'으로 추락한 것으로 인프라 통신 교통 사무국(SICT)은 밝혔다.

멕시코 검찰은 사망자의 신원과

관련 국적을 밝히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한국인으로 보도했다.

사망자는 사무엘 리젠(Samuel Lee Zhen, 22)과 비위안 마(Biyuan Ma, 22)로 부부 사이로 알려졌다.

CDMX 검찰청은 "피해자들이 소갈로 광장과 차플테펙성, 아즈

테카 경기장 등 시티 상공을 헬기로 관광시켜주는 Let's Fly 라는 개인 회사가 운영하는 관광객 전용 헬기를 탑승했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감식 기관으로 옮겨진 사망자는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 가족들에게 인계할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 당국은 사고수습이 마무리 되면 유가족들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관련 기관들이 모두 협조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고 이후 현지 언론은 탑승자가 한국인 부부로 명확히 밝히고 있지만 이름과 성이 중국인에 가까워 일부에서는 실제 한국인인지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 신, 구 권력 다툼?, 후보 선거 전략이 마땅찮은 대통령 불만 드러내..

어느나라나 마찬가지로 대통령 단임제 국가는 쉽게 레임덕에 빠진다는게 정설인데 멕시코 대통령 만큼은 예외인 것 같다. 임기를 몇 달 남겨놓지 않은 현 상태에서 그의 권력은 절대적으로 하락세는 엿보이지만 일반적인 레임덕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견고한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권력의 정점에서 보면 '힘의 순환'이라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대통령의 임기말과 유력한 후보자 사이에는 보이지 않은 '과위

게임'이 일어나면서 균형추는 자연스럽게 후보자로 옮겨가기 때문이다.

멕시코에서 6년 임기 첫 해에 대통령은 권력의 모든 것이었고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임기 중반에 들어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자신이 지명한 후보자가 유력한 대통령 후보인 경우 이를 통제하려는 대통령과 벗어나려는 후보자 사이에는 각종 현안을 두고 파워게임 양상을 보이게 되는데 현재 멕시코가 이런 상황에 돌

입해 있다. 절제적인 신임을 보내며 지원하던 대통령이 최근 들어 후보자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며칠전 대통령은 웨인바움 후보가 현 정부의 성과에 대해 공식 토론회에서 다루지 않은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면서 균열 현상을 보여 크게 주목을 받고 있다.

임기말이 가까워지자 무리하게 마야열차 운영을 강행하거나 각종 대형공사의 완공식을 의도적으로 앞당겨 '부실공사' 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현 대통령은 자신의 치적 알리기에 매우 적극적이었다. 전 외무장관을 제치고 Claudia Sheinbaum에 대해 현 정부의 정치 프로젝트를 통합할 유일한 사람이라고 확신하면서 적극 지원했고 지금 여론의 흐름상 당선을 기정사실처럼 굳어지고 있다. 그런데, 정작 토론회에서는 현 정부의 업적에 대한 설명은 사라지고 미래 정부의 청사진만 나열하자 단단히 화가 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관련기사 2면)

2024 법정 공휴일	DÍAS FESTIVOS OFICIALES (Días de descanso obligatorios)
1월 01일 신년	9월 16일 독립기념일
2월 05일 헌법의 날	11월 2일 망자의 날*
3월 18일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	11월 20일 혁명기념일
3월 28일~29일 부활절*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축일*
5월 1일 노동절	12월 25일 성탄절
5월 5일 뿌에블라 전승기념일*	

(\*비공식: 일반적으로 휴무이나 법정 공휴일은 아님)

환율 정보 (오전10:00분 현재 - Banamex)			
멕시코 페소 / USD		한국 원화 / USD	
살 때	16.54	살 때	1,415
팔 때	17.47	팔 때	1,366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안내	
번호판	끝자리 검사 기간
1, 2번	04-05월 / 10-11월
3, 4번	03-04월 / 09-10월
5, 6번	01-02월 / 07-08월
7, 8번	02-03월 / 08-09월
9, 0번	05-06월 / 11-12월

# 멕시코, 2023년 자동차 생산 세계 7위

국제 산업 그룹의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코는 2023년에 다시 한번 세계 7위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되었으며, 연간 생산량 증가율은 상위 10개 국가 중 세 번째로 높았다.

국제자동차제조기구(OICA)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멕시코의 자동차 생산량은 연간 14% 증가해 2023년에는 400만대가 조금 넘었는데 310만 대 미만의 상용차와 9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생산하여 4년 연속 세계 7위의 자동차 제조 국가로 나타났다.



2023년 멕시코는 총 생산량 기준으로 중국, 미국, 일본, 인도, 한국, 독일에 이은 7위로 멕시코 뒤를 이어 스페인, 브라질, 태국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다. 지난해 411만대를 생산한 독일과 총 424만대를 생산한 한국은 멕시코에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세계 10대 자동차 제조업체 중 생산량은 독일에서 18%, 일본에서는 15% 증가하면서 이들 국가만이 멕시코보다 더 큰 연간 생산 증가율을 기록했다.

미국과 한국뿐만 아니라 이들 국가의 자동차 제조업체도 멕시코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그 중 일부는 이곳에서 사업을 확장할 계획을 갖고 있다. BYD, Jaecoo와

같은 중국 기업은 곧 이곳에 제조 시설을 설립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멕시코에서 자동차 생산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OICA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 세계에서 총 9,354만 대의 차량이 생산되었으며, 이는 2022년 대비 10%, 2019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로 3분의 1이 중국에서 생산되었는데 지난해 총 생산량은 2,610만 대를 포함해 3,016만 대에 달했다. 다른 국가와 비교볼 때의 절대 생산량으로 중국은 1위를 고수하고 있다.

1면에 이어..

상징적이지만 "모든 전권을 준다"는 지팡이를 건네주면서 후보자에 힘을 실어준 대통령이었지만 막상 자신의 뜻과 다른 행보에 적잖이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면서 후보자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사실, 현 대통령과 여당 후보자와는 이미 멕시코 시티 시장선거를 두고 한 차례 뼈적 거린적이 있는데 러닝메이트 형식으로 출마에 힘을 실어줬던 전시티치안장관직을 역임하고 시티 시장후보로 나섰던 '하푸치'에 대해 과거 PRI당 소속을 문제삼아 대통령이 제동을 걸면서 결국

후보교체를 했는데 지금 그 후보(카를라, 전 이스타팔라과 구청장)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현재 여론조사로는 거의 야당후보와 박빙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후광으로 어렵게 시티 시장 후보 자리를 꿰찬 '카를라'가 현 여당 후보인 웨인바움과 상당히 사이가 안 좋다는 점이다.

드러내놓고 비판을 하지는 않지만 같은 여당후보로 대통령과 시티시장직을 동시에 거머쥘수 있는 기회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갔다는 분노도 있지만 같은 여성후보로 이질감이 상당히 강기 때문에 한쪽이 당선되든 양쪽

모두 당선되든 유기적 화합은 사실상 어려워 당선 이후 여당내 알력 다툼이 임기내내 계속될 것이라는게 정치권의 해석이다. 결국, 오는 10월1일에 결정되는 대선에서 현 웨인바움 여당 후보가 당선되고 시티시장역시 여당후보가 당선될 경우 이미 대통령과 권력다툼이 본격화 된 현 시점에서 시티 시장은 대통령 편에 서면서 같은 여당 소속이지만 최고의 2개 권력, 대통령과 시티 시장은 사사건건 충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현 대통령의 아들과 형제들이 각종 국가 공사에

서 직접 뇌물을 받거나 압력을 행사하여 친한 친구에게 거액의 이익을 남겨주는 등, 자칫하면 차기 정부에서 '게이트'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방패막이 역할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은 현 후보이기에 대통령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이미 힘의 균형추는 50%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 현 여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 어떤 형식이든 현 대통령의 퇴임후는 현재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큰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

## 당신의 재산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조연자

멕시코에서 재산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유자금으로 투자 또는 저축 보험에 가입하시면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새로운 투자 펀드에 투자, 고수익
- 프랜차이즈에 직접 투자하거나 신규 사업 추진시 혜택
- 노후 걱정 없이 품위 있는 은퇴를 위해 사용
- 자녀를 위한 대학 학자금으로 사용
- 집을 구매 할 때 지원
- 여행을 떠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여행경비 지원 혜택
- Allianz Mexico의 옵티막스 상품을 통해 큰 혜택을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번 돈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성공한다" 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저에게 연락하세요!

이메일: [begj@bgjtuasesorseguro.com](mailto:begj@bgjtuasesorseguro.com)

[bernardoegj@bgjtuasesorseguro.com.mx](mailto:bernardoegj@bgjtuasesorseguro.com.mx)

[www.bgjtuasesorseguro.com/seguros-e-inversiones-0-0-0-0-0](http://www.bgjtuasesorseguro.com/seguros-e-inversiones-0-0-0-0-0)

전화: 56-2802-8481 담당: Bernardo Gonzales Jimenez





# 멕시코, 국제사법재판소에 에콰도르 제소 예정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MLO) 대통령은 지난주 경찰이 키토 주재 멕시코 대사관을 급습한 것과 관련해 에콰도르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시코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재임했지만 멕시코에 망명을 약속했던 호르헤 글라스(Jorge Glas) 전 에콰도르 부통령을 체포하기 위해 에콰도르 경찰이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 진입한 후 토요일 에콰도르와의 외교 관계를 단절한 바 있다.

Glas 전 부통령은 에콰도르에서 부패 혐의로 두 차례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현재 지진 재건 자금을 오용했다는 새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자신에 대한 부패 혐의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왔으며 정치



적 망명 요청도 이같은 정부의 박해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 부통령은 작년 12월부터 멕시코 대사관으로 피신해 있었다.

알리시아 바르세나(Alicia Barcena) 멕시코 외무장관은 남미 국가와의 단교 결정은 “[에콰도르]가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특히 멕시코 외교관의 불가침성 원칙을 노골적이고 심각하게 위반한 점을 고려하여 내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대사관 강제 진입을 “국제법과 멕시코 주권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말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도 지난 금요일 사건 이후 멕시코와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32개국으로 구성된 지역 기구인 미주기구(Organization of American States)도 에콰도르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데 경제협정을 맺고 있는 주요 두 국가인 미국과 캐나다는 아직 뚜렷한 지지 성명을 내놓지 않고 있어 멕시코 정부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멕시코 외교장관은 라틴아메리카 및 카리브해 국가 공동체(CELAC) 외무장관 회의에서 CELAC 회원국들에게 “우리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할 소송과 우리가 제출할 서신을 지지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반면, 다니엘 노보아(Daniel Noboa) 에콰도르 대통령 금요일 밤 급습 직후 발표한 성명에서 “에콰도르는 주권국가이며 어떤 범죄자도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사람으로 간주될 수 없다”며 “호르헤 글라스를 보호하고 있는 외교 사절단이 에콰도르에게 부여된 면제와 특권을 남용했다”고 멕시코 정부를 비판했다.

전 부통령에게 “기존 법적 틀에 어긋나는 외교적 망명을 허용해 줬다”면서다.

이번 사태의 직접적인 동기는 멕시코 대통령의 에콰도르 대선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면서 특정 후보에 대해 비판한 것이 도화선이 되었으며 결국 부메랑으로 외교관계까지 단절되는 악영향을 미쳐 차기 정부에서 어떤 해결책을 내놓을지가 주목받고 있다.



licenciasinternacionales@outlook.com



www.licenciasinternacionales.com.mx



(+52)33 1574 1283



8008384572

많은 한국인들이 우리를 통해 국제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았습니다.

## 국제운전면허

### 이제 필수입니다.!

-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신가요?  
한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멕시코에서 사용하려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국제 운전면허 관련 업무에 충분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문의 하세요.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해 드립니다.  
지금 곧바로 연락하세요!



## 코로나 수그러들자 '홍역' 이 나타났다

멕시코에서는 팬데믹 기간 동안 국가 백신 접종 캠페인이 중단되고 보건 예산이 삭감되면서 바이러스 재유행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발병이 지속된 '홍역'이다.

1951년에 멕시코에서 마지막 사례가 보고된 '홍역'은 오랜 기간동안 풍토병으로 수 많은 사상자를 내며 보건당국을 괴롭혀 온 질병인데 멕시코 제국 멸망의 원인을 제공했던 '천연두'와 더불어 원주민들을 거의 몰살 시키다시피 했던 전염병이다.

'천연두'는 발병 후 종식까지 거의 300년 이상 흘렀는데 '홍역'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멈추지 않고 있는 전염병이다.

멕시코에서는 4건의 홍역 사례가 최근인 4월 10일 확인되면서 역학 경보가 발령되었으며, 이는 3월 14일 해외 유입 사례에서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루마니아 출신으로 헝가리에 거주하는 2살 미만의 어린이로, 최근 몇 달간 프랑스와 영국을 거쳐 멕시코시티에 도착하면서 발병 사례가 나온 것으로 역학조사결과 확인됐다.

불과 10여년 동안 홍역 사례는 증가하기 시작하여 작년부터 전



세계를 놀라게 한 수치로 구체화되었는데 2022년에는 유럽 연합에서 약 900건의 사례가 기록되었지만 다음 해에는 3만 건으로 늘어났다.

팬데믹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홍역'은 낮은 예방접종률을 보이면서 전염이 가속화 되었으며 여행객을 통해 전파되고 있음을 최근의 사례에서 입증 되고 있다.

홍역은 전염성이 매우 높은 질병이다. 1명의 감염자가 최대 16명을 감염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주로 어린이가 취약 계층이다.

감염된 사람의 코, 입에서 나오는 비말을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감염 후 8~12일 사이에 나타나는 초기 증상은 고열, 콧물, 결막 충혈, 뺨 안쪽에 작은

흰색 반점 등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 증상 며칠 후부터 목에서 시작하여 신체의 나머지 부분으로 퍼지는 발진이 나타나는데 치료는 증상에만 초점을 맞추고 대부분의 환자는 2~3주 안에 회복되지만, 21일 동안 계속 전염성이 있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특히 영양실조 및 면역억제 환자의 경우 더욱 그렇다.

WHO(세계보건기구) 데이터에 따르면, 홍역 백신 접종률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꾸준히 감소했는데 전 세계적으로 약 4천만 명의 어린이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전례 없는 숫자로 2,500만 명의 어린이가 첫 번째 접종을 받지 않았고 1,470만 명이 두 번째 접종을 받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같은 미접종이 크게 늘어나면서 홍역 근절을 위한 전 세계적인 진전에 심각한 장애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에 노출되게 한다.

홍역은 전염성이 가장 높은 인간 바이러스 중 하나이지만 예방접종을 통해 거의 완전히 예방할 수 있다. 집단 면역을 생성하려면 두

가지 백신 접종의 95% 적용이 필요하다.

멕시코의 경우 2023년 기준, 76% 예방 접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UNAM의 Zaragoza 고등학부 학자인 Rocío Paniagua 박사는 "바이러스의 치사율이 최대 10%에 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고 있다.

취약한 계층인 어린이는 2회 접종이 필수로, 즉 1세에 접종하고 6개월 후에 2차 접종을 해야 한다.

35세 이상인 성인의 경우 백신 접종이나 질병 접촉을 통해 면역력을 갖고 있어 상대적으로 덜 위험하지만 감염 후 최대 7년까지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이 위험요소로 알려져 있다.

멕시코에서는 1970년부터 홍역 백신이 적용됐고, 1998년에는 삼중 바이러스 백신으로 대체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현편, 세계보건기구인 WHO는 올해는 전 세계적으로 홍역 사례가 급격히 증가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예방접종 캠페인과 강력한 감시 시스템으로 전염병 확산을 막겠다는 멕시코 보건부는 최근 발병 사례를 근거로 '역학 경보'를 내리면서 예의 주시 하고 있다.

## 한국 전기차 공급업체, 멕시코 북부에 새 공장 착공

한국 전기모터 제조사 서진모빌리티(Seojin Mobility)가 현재 북부 누에보레온 주에 건설 중인 멕시코 첫 공장에 3억 달러를 투자한다.

건설의 첫 번째 단계가 2억 달러의 비용으로 2025년 2월까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두 번째 단계인 1억 달러가 하이브리드 모터를 생산, 미국산 현대 차량에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한국 전기차(EV) 공급업체는 이 공장이 가동되면 300개의 일자리



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 몬테레이 북쪽 Escobedo 시에서 강병혁 서진모빌리티 멕시코 법인장과 호세 안토니오 키로가(José Antonio Quiroga) 지자체 회장이 착공식

을 주재했다. 강병혁 대표는 "서진모빌리티가 조지아주 서베너에 있는 현대공장의 전기차용 모터를 제작할 예정이며, 에스코베도에서 서쪽으로 36km 떨어진 페스케리아 시에서 기아자동차 사업장과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진이 산타카타리나(에스코베도에서 남서쪽으로 27km)에 있는 테슬라 공장용 모터를 제작할 것인지 묻는 질문에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시흥에 본사를 둔 서진모빌리티는 현대와 기아의 주요 공급업체이며 GM, 르노, 페라리, 볼보와도 계약을 맺고 있다.

공장이 위치하게 되는 곳은 Tesla 공장과 인접한 지역으로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Escobedo로 위치를 선정할 것과 관련, 몬테레이 산업 중심지 근처로 텍사스 주 라레도에서 불과 150마일 거리라는 이점과 자격을 갖춘 인력의 존재 때문"으로 회사측은 밝히고 있다.



# 중국산 수입자동차 때문에 멕시코 일부 항만 포화상태

Michoacán의 Lazaro Cardenas는 작년에 해상으로 들어온 574,876대 중 417,869대의 차량을 받았다.

새로운 중국 자동차 회사의 도착은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 한국, 인도네시아 및 태국에서 수입된 차량이 도착하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에 가장 중요한 Lazaro Cardenas, Michoacán 항구를 포함하여 태평양 항구를 포화시키고 있다.

지난해 멕시코 태평양을 통해 574,876대의 차량이 해상으로 수입되었고, 294,827대가 수출되었는데 해군부 통계에 따르면 수입차 574,000대 중 417,869대가 Lazaro Cardenas를 통해 멕시코 국내에 들어왔다.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는 353,307대의 차량만이 태평양을 통해 수입되었으며, 그 중 294,758대가 미초아칸 항구를 통해 도착했다.

그러나, 지난해부터 멕시코에서는 중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는데 JAC, BAIC, JMC, Changan, MG 등 기존 등록된 업체외에도 Chirey, Great Wall Motors, Jetour, Geely, BYD, SEV, GAC는 물론 Neta,



Skywell 및 Bestune도 도착하면 서 크게 늘어난 경우다.

현재, 멕시코 국내 시장에는 23개의 중국 브랜드가 있으며, 2024년에 추가로 3개의 브랜드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항만 포화상태는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Santamarina 및 Steta의 인프라 개발 및 금융 실무 분야 파트너인 Ricardo Orea는 "태평양 항구의 포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중국에서 자동차를 수입하는 것"이라고 말해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 했다.

"(항만이 포화가 된) 가장 중요한 요인은 2022년 말부터 중국에서 도착하는 자동차 때문으로 멕시코 시장에서 중국 자동차 산업의 참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여 역사적인 제조업체로부터 시장을

빼앗고 있다" 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제는 항구가 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Toyota나 Honda와 같은 브랜드에서 새 트럭을 출시하기 위한 대기 시간이 최대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항만 당국은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적체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Lazaro Cardenas 항구는 주변 물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를 하고 있지만 트레일러나 화물 차량을 기관으로 가져가기 전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조종 야드를 확장할 수가 없어 근본적인 대책은 없는 상황이다.

운송 차량은 컨테이너처럼 쌓을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어떤 제품보다 물리적인 공간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 해결이 쉽지 않다는 점이 다.

실제, 작년에 미쓰비시는 라자로 카르테나스 항구에서 들어오고 나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에서 6시간으로 두 배로 늘어났다고 밝혀 심각한 적체현상이 사실임을 보여주고 있다.

항만의 포화정도는 상품이 최종 목적지로 배송되기 전에 항구에 머무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수치화 한다.

라자로 카르테나스(Lazaro Cardenas) 항구는 코로나19 이후 수요 증가가 예상되지 않았고, 새로운 중국 브랜드의 등장도 예상하지 못한점, 이로 인해 차량을 하역하는 크레인이 부족현상이 연쇄적으로 발생하면서 항구의 화물 처리능력이 급격히 떨어진 경우다.


지금은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이 없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인데 과거에는 연말이나 크리스마스 전후로 가장 혼잡하며 물동량이 많았다.

같이 태평양권으로 Manzanillo가 Lazaro Cardenas 항구의 대안이 되었지만 만사니요 역시 화물 포화는 비슷한 실정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

## 국제 이주 화물

숙련된 인원과 장비로 직접 서비스 합니다.

- 30년 경력
- 신속한 견적
- 양질의 풍부한 포장재료 사용 (OUT BOUND)
- 다양한 사양의 벤 & 박스트럭 보유 ( 1톤-25톤 )

 PanTrans HHGDS

홍승표 전무: sphong@pantrans.com.mx  
 이남수 이사: leens@pantrans.com.mx  
 Web: www.pantrans.com.mx  
 YouTube: PanTrans México  
 Tel.: (52 -55) 5566 8955, 5566 6456,



몬테레이 / 시티

## 비자문제,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개인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유형의 비자업무 취급

- ◆취업비자 \$10,000
- ◆비자연장 \$5,000
- ◆임시 및 영주권자 신분 변경 \$6,000
- ◆직장, 주소, 결혼 여부 변경 \$4,000
- ◆국적변경 \$4,000
- ◆일 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 \$6,000
- ◆고용주 등록 증명서 발급 \$6,000
- ◆이민서류 교환 \$4,000

**RYF CONSULTING, S.A. de C.V.**

주소:Aguilas # 200 A Colonia, Las Golondrinas Apodaca N.L.  
 전화: Tel(oficina) (81) 83324197, Cel. 8119445318 Lic.  
 메일: rsalas@ryfconsulting.mx / ysalas@ryfconsulting.mx

## 해외에 거주 약 4만명 멕시코인 선거인 명부 제외에 반발

멕시코 중앙선거위원회(INE)가 "부정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거의 4만 명의 외국거주 멕시코 시민이 선거인 명부에서 제외되자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이 일어나고 있다.

선거위가 문제를 삼고 있는 부분은 유권자 등록 신청서상의 신분 내용 '불일치'다.

INE에 따르면, 42,436개의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 대해 꼼꼼한 검토를 실시했으며, 검토된 신청서 중 거의 94%에 해당하는 39,724개가 지원 문서의 '불규칙' 또는 '일관되지 않음'으로 인해 등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선거관리당국은 유권자 등록 신청서에서 발견된 부정성과 불일치가 4가지 범주로 분류했는데 서명이 판독 불가능하거나 유권자 ID와 일치하지 않는 등 '서명 불규칙성'으로 인해 18,000개 이상의 신청서가 거부되었다.

또 INE 요구 사항을 '비준수'하여 12,500개 이상의 신청서가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다. 8000여 건이 넘는 신청서에는 '가짜 문서', '존재하지 않는 주소'가



포함된 등 '다중 부정'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800개 이상의 신청서에는 주소 증명으로 제공된 문서가 실제 거주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발견됐다.

현재, 전체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은 187,388명으로 나타났는데 제외된 4만여명이 미포함된 수치다. 제외된 유권자는 17.5%(6명 중 1명)에 해당한다.

논란을 불러온 것은 중앙선거위의 해명과정에서 증폭됐는데 신청이 거부된 사람의 수는 전국 선거인명부에 등록된 시민 수의 0.04%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즉, 전체 유권자 수천만명에 비하면 미미한 숫자로 큰 의미가 없

다는 해석으로 받아들여져 재외국민을 무시했다는 것이 더 큰 반발을 불러온 것이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한 언론사 기자는 이를 두고 "INE이 39,000명이 넘는 멕시코인의 지원을 거부함으로써 대단한 사기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대통령은 "재외국민들의 불만을 알고 있다"면서 "정부가 투표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찾고 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은 즉시, 알리시아 바르세나 외무장관과 루이사 마리아 알칼데 내무장관에게 INE 선거위원을 만나 이 문제를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멕시코의 차기 대통령에 도전하고 있는 세 후보인 Claudia Sheinbaum, Xóchitl Gálvez, Jorge Álvarez Máynez는 모두 외국 선거인명부에서 해외에 있는 수만 명의 멕시코인을 제외시킨 INE을 비난하고 나섰다. 즉시, 이들을 모두 유권자로 등록하라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나오면서 정

치권이 한 목소리로 중앙선거위의 결정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다.

논란이 확산되지 INE는 해외에서 투표 신청이 거부되었다는 연락을 받은 재외국민은 INE로 연락해서 등록 관련사항을 다시 확인할 것을 주문하면서 5월 5일까지 필요한 설명을 하고 외국거주 선거인 명부에 등록 승인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나섰다.

멕시코도 재외국민은 지정된 투표소를 방문해서 직접 투표를 해야 하며 온라인이나 우편으로는 투표할 수 없다. 현재, 재외국민을 위한 투표소는 23곳으로 멕시코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배정되어 있다.

대부분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데 로스앤젤레스, 뉴욕, 휴스턴 등 미국 내에만 20곳이 있으며 캐나다 몬트리올에는 1곳과 스페인 마드리드와 프랑스 파리에 각각 1곳이 배정되어 있다.

갑자기 참정권이 취소된 약 40,000명의 멕시코인들은 정부의 업데이트된 결정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 멕시코 실업률 지난 2월 거의 1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멕시코의 실업률은 지난 2월 거의 1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해 1월 2.85%에서 2.45%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INEGI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월 기준 경제활동인구(PEA)는 6090만명에 조금 못미치고 이 가운데 실업자는 149만명에 이른다. PEA는 일을 하고 있거나 일자리를 찾고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실업률 2.45%는 EAP의 실업률이 2.4%에 불과했던 2023년 3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지난달 여성 실업률은 3.1%였고, 경제활동인력 남성의 실업률은 2.4%였다. 계절조정 실업률은 2.58%로 조정되지 않은 실

업률보다 약간 높았다. 그러나 이 비율은 INEGI가 계절 조정 수치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낮다.

2월 전체 실업자 수는 1월보다 23만5000명 이상 줄었는데 2월에 취업한 사람들 중 상당수가 비공식 부문에 취업하면서 공식 부문보다 훨씬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다.

비공식 부문에서는 근로자가 세금을 내지 않고 의료 서비스나 유급 휴가와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없는 일자리를 뜻하는데 이는 전체 근로자의 54.5%에 해당한다.

지난 달에는 약 3,240만 명의 멕시코인이 비공식 부문에 고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INEGI에 따르면 비공식 부문 근로자 비율은 2023년 2월 대비 1포인트 감소했지만, 1월 대비 0.4포인트, 12월 대비 0.9포인트 상승했다.

Banco Base의 분석 담당 부국장인 Jesús Anacarsis López는 "비공식 비율을 줄이는 것이 멕시코 노동 시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INEGI는 또한 2월에 380만명의 일자리가 불완전 고용되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그들이 더 많은 시간을 일하기를 원하거나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수치는 전체 멕시코 근로자의 6.5%를 차지하는데, 이는 전년도 7.6%보다 감소한 수치다.

2월에 가장 많은 일자리가 추가된 부문은 제조업으로 2월에 631,000명 이상의 일자리가 추가되었으며, 서비스 부문 인력은 거의 433,000명 증가했다.

반면, 2월에 가장 많은 일자리를 잃은 부문은 농업 부문으로 398,000개 이상의 일자리가 사라졌고, 건설 부문에서는 거의 141,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Monex 금융그룹의 경제 분석 이사인 Janneth Quiroz는 2024년 상반기에도 실업률이 계속 하락할 것으로 추정하면서 다가오는 선거로 인해 임시직에 대한 추가 기회가 창출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실업률이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 유카탄, 자동차 부품 산업단지로 새롭게 부각

니어쇼어링 효과에도 자동차 산업에서 두드러지지 않았던 멕시코 주들이 이제 자동차 부품 부문에서 성공을 거두고 있으며, 유카탄 주가 대표적인 예다.

전국자동차부품산업협회(INA)는 이번 주 이 부문에서 새로운 상위 10위를 공개했다.

북부 국경 근처의 주, 산업 중심지 및 바히오 지역이 여전히 우세하지만 유카탄에서는 자동차 부품 생산량이 거의 118% 증가했다.

Forbes Mexico는 INA 데이터를 인용하여 걸프 지역의 자동차 부품 생산량이 2023년 1월의 1,100만 달러에서 올해 1월 2,300만 달러로 급증하여 유카탄이 미국에서 자동차 부품 생산이 가장 많이 증가한 주가 되었다고 밝혔다.

Zacatecas는 8,800만 달러에서 1억 1,500만 달러로 31.5% 증가하여 2위를 차지했으며, Durango



가 18.8%, San Luis Potosí가 18.3%로 뒤를 이었다.

INA 이사 Armando Cortés Galicia는 Forbes Mexico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새해가 시작되면서 멕시코 자동차 부품 부문의 역동적인 성장이 훌륭하게 통합되고 있다"면서 "새로운 지역의 생산 증가가 해당 국가로 이전하는 기업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니어쇼어링과 관련된 생산 체인의 재배치에서 중요한 점 중 하나는 모든 국가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으로 초기 성장은 제조 운영이 이미 존재하는 전통적인 주에서 볼 수 있지만 결국 이러한 모든 요소는 다른 지역에서 더 큰 이익을 창출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Lider Empresarial 잡지는 유카탄이 니어쇼어링을 통해 새로운 투자를 유치하는 선구자가 되었다고 보도했는데 3월 중순 Aguascalientes에서 열린 국제 Nearshoring 회의에서 Mauricio Vila Dosal 유카탄 주지사는 "더 많은 발전소, 새로운 천연 가스 라인, Progreso 항구 개선 및 Maya 열차 연결과 같은 중요한 인프라에 대한 Yucatán의 투자가 큰 도움이 되었다"면서 "남동부주는 멕시코에서 새로운 근거지 투자를 받는 주로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자동차 생산량 증가와 부품 수출에 힘입어 멕시코 전역에서 1월 총 자동차 부품 생산량은

2018년 이후 최고치인 100억 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미국으로의 자동차 부품 수출은 1~2월 더욱 증가해 135억 달러를 넘어섰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보다 40% 이상 증가한 수치이다. 엘 이코노미스타(El Economista) 신문은 이러한 개선이 2020년 7월 1일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비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미 멕시코에서 생산된 자동차 부품이 미국을 지배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멕시코산 자동차 부품이 전체 자동차 부품 수입의 42.5%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수입의 10.5%를 공급하는 2위 캐나다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멕시코가 이제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반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 멕시코도 카지노 열풍, 1인당 일일 지출액 50% 증가

멕시코도 점차 카지노 열풍이 불고 있다. 지난해에 비해 1인당 지출 평균비용이 거의 50%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방문객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 500만명이 카지노를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에서 카지노장 개설은 상당히 까다롭다. 규정과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다.

즉, 국내에서 운영되는 게임룸이 증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과 지출 금액이 증가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에서 1인당 일일 평균 비용은 지난 7년 동안 320페소에서 480페소로 50% 증가했다. 눈길을 끄는 점은 40세 이상의 멕시코 여성이 주요 고객이라는 점이다. 특히, 3명 중 2명은 중독에 가까울 정도로 자주 카지노장을 찾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최소 1년에 한 번씩 카지노를 즐기러 온 사람은 50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는데 이같은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30년에는 1000만명이 카지노장을 찾

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카지노장을 찾는 사람 대부분은 '슬롯머신'을 이용하는데 전체 방문객 중 약 80%가 이에 해당한다. 기계 앞에 앉아 있는 시간은 1인당 평균 2시간 45분에 이른다.

슬롯머신에 이어 배팅의 12%는 룰렛 외에 바카라, 블랙잭 등 게임 테이블에서 이루어지며, 나머지는 라이브 스포츠 배팅이나 빙고와 관련이 있다. 가상 카지노의 경우 대부분의 배팅이 스포츠에 이루어진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2005년 38명의 허가 보유자에게 872개의 카지노장 허가를 내주었지만 실질적으로는 29개 주에서 425개 카지노만 개장했는데 아직도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 카지노장이 447개 있다는 뜻이다. 카지노를 개장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연방정부에서 허가를 했지만 해당 지방자치정부에서 토지사용 허가를 잘 내주지 않

고 있는 점이다.

현재까지 Baja California가 44개로 가장 많은 수의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으며 멕시코시티가 35개로 그 뒤를 따른다. 이어 누에보 레온 33개, 소노라 32개, 할리스코 29개, 멕시코 주가 28개, 베라크루스 주가 21개로 나타났다. 카지노가 성업을 누리면서 기계판매도 크게 늘어났는데 2021년에서 2023년 사이에 평균 10~1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시티, 몬테레이, 티후아나, 칸쿤이 장비 판매에 가장 좋은 시장으로 업계에서는 보고있다. 이와 관련, 비디오 빙고 등 카지노 게임을 제공하는 회사 대표는 "허가를 받는 것이 다소 지루하고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있지만 멕시코 시장은 좋은 전망을 가지고 있다"고 긍정적이다. 반면, 가장 최근까지 신규 객실 개장에 대한 인가가 없어 정체될 위험이 있는 분야인 카지노의 성장에 반하는 요인으로 지목하기도 한다. 도박

및 사행성 종목인 카지노 설립은 헌법 제 73조에 의해 반드시 당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업종으로 정해져 있는데 2004년에 게임 및 경품 행사에 관한 연방법 규정이 발표되었으며 이후 2012년 10월과 2013년 같은 달에 일부 규정이 수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멕시코는 여느나라와 다르게 도박 중독에 대한 법률 규정이 없다. 실제, 멕시코 보건부는 지나친 도박에 집착하는 경우에도 이를 '중독'으로 간주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예산도 전무한 상태다.

국제 연구에 따르면 카지노에 가는 인구의 0.6%에서 2% 사이가 도박 중독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다만, 멕시코는 잠재적으로 문제가 있는 고객에 대해서는 카지노 직원이 위험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전문적으로 돌보는 기관의 전화 번호가 적힌 표지판을 업장 입구에 세워두는 것으로 책임을 면하고 있다.

# 화물운송 차량 30%만 보험가입, 비싼 보험료에 직접 보호장치 부착

운송 부문에서 도난당한 화물의 70%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화물 차량 도난의 증가로 인해 최근 몇 년 동안 보험 가격이 인상되면서 도난 화물의 10~30%만이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거의 100%에 달하는 보험가격 인상에 직면한 기업들이 다른 보호 기술, 즉 자체적으로 방어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다.

일부 운송업체는 상품 유형과 전체 손실 여부에 따라 각 도난으로 인한 손실이 50만 페소에서 700만 페소 사이로 추산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보호 기술을 설치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보험료 부담 때문이다.

미국 화물 운송 협회(Canacar)와 보안 회사인 AI27의 전문가에 따르면, 보험, 재보험 및 위험 관리 중개업체인 THB Mexico의 비즈니스 개발 이사 Alfredo Careaga는 "운송 도난화물의 10~30%가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물품 보험 부문의 육로 운송에 있어서 도난이 미치는 영향은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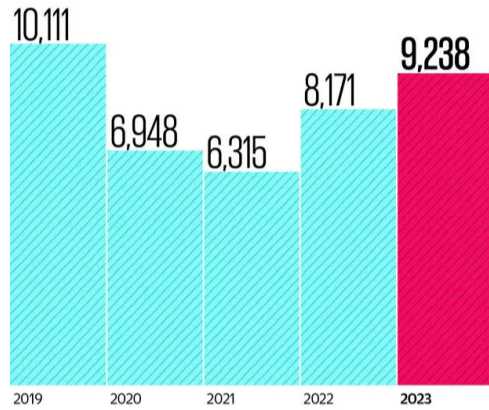
공식 보안 통계에 따르면 2023

## Atracos sin tren

El hurto de camiones crece y se ubica cerca del nivel previo a la pandem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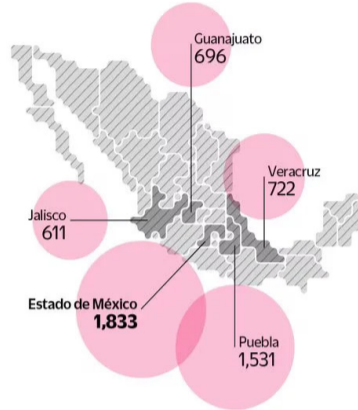
## Robo de vehículos pesados

Unidades aseguradas



## Entidades con más casos de hurto

Unidades aseguradas en 2023



년 월 평균 765건의 도난 사건을 고려할 때 THB 멕시코 대표는 지난 10년 동안 보험료 인상이 거의 100%에 도달했다고 한다.

실제, 육로 화물 운송보험 평균 보험료는 지난 5년간 52.97%, 지난 10년간 97.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배송 가치, 보험 상품 수, 한 트럭에서 다른 트럭으로 보장되는 총액과 같은 요소가 있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전제하에서다.

특히, 도난률이 가장 높은 주에서 비용 증가와 사고 증가로 인한 보험 가입 감소 사이에 상관 관계가 있는데 보험 가입을 위한 비용과 요구 사항이 증가함에 따라 운송 부문의 개인과 회사 모두 점점

더 '자가 보험'을 선택하거나 위험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보험사는 보험 상품을 처리할 때 무장 경비, 위성 위치, 환승 일정 제한과 같은 보안 조치를 통신사에 요청하는데, 이는 추가 비용을 의미한다.

국립화물운송협회(Canacar)에 따르면 도난 사건 증가로 인해 보험사들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보험 상품 가격을 30% 인상했는데 당국에 신고된 전체 대형차량 대비 보험에 가입된 화물운송 대수는 증가율 면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인프라통신교통부(SICT)의 자료에 따르면, 등록된 연방 화물 자동차 운송 대수는 2021년 100만

21000대에서 2022년 100만 253000대, 지난해는 100만 33만 2000대로 증가했는데 같은 해 멕시코 보험협회(AMIS)에 등록된 화물차량 보험 건수는 70만7천건, 76만9천건, 78만3천건으로 11% 증가하는데 그쳤다.

국가공안시스템 사무국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화물운송 관련 범죄는 13,848건으로 2022년 13,265건보다 4.39% 증가했다.

강도 사건 발생률이 가장 높은 곳은 멕시코 주, 푸에블라, 베라크루즈, 누에보레온, 과나후아토, 할리스코주이며 가장 많이 도난당하는 제품은 베틀시장, 시장 또는 공급 센터에서 비공식적으로 소비자에게 제공되기 때문에 판매하기 가장 쉬운 제품이며 그중에는 탄화수소, 청소 제품, 의약품, 치유 재료, 의류, 신발, 판지, 플라스틱 및 화학 물질이 주요 도난품이다.

CNSF(국가보험보세위원회)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보험료가 가장 많이 인상된 주는 아구아스칼리엔테스, 사카테카스, 과나후아토, 두랑고로 이곳의 지역 보안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위험한 지역일수록 보험료는 더 인상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 카드 결제 수수료, "별도로 못 받는다"

일부 매장에서 카드수수료를 별도로 받는 행위에 대해 그동안은 묵인이 되어왔으나 이제는 처벌을 받게 된다. 멕시코 의회가 이를 '부당행위'로 간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하원 본회의는 은행 카드 결제에 대한 수수료 부과를 금지하는 개혁안을 승인했다. 모든 정당이 찬성하는,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연방 소비자 보호법 제7조 3항을 추가하고 제127조를 수정했

는데 "상품, 제품 또는 서비스 공급업체가 직불 카드를 사용할 때 소비자에게 '수수료'라는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시킨 것이다.

지불수단으로서 카드, 신용카드 등 모든 신용카드 결제가 별도의 수수료 없이 사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만약, 법을 위반할 경우 \$701.15에서 \$2,243,671.49 페소 범위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PAN 의원



René Figueroa Reyes는 이번 법안 통과로 경제 활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면서 불법업소를 발견할 경우 해당 기관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

다. 의원들은 카드수수료 부과는 매장의 갑질행위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외에도 실제 피해를 당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는데 복잡한 절차도 도마위에 올랐는데 관련 기관인 소비자 보호원 Profeco와 은행불만처리기관 Condusef이 좀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 입장에서 처리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하원을 통과한 법안은 상원의 인준절차를 남겨두고 있는데 무리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 멕시코 121톤 금 보유, 역사상 최대치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이 확보한 금 덕분에 멕시코는 역대 최대치의 금을 보유하게 됐다. 금액으로는 80억 달러에 해당한다.

국제 결제 지급준비금은 거시경제적, 금융불균형에 대비한 국가의 주요 보험으로 지난달 지급준비금 잔액은 2,170억 달러에 달했다.

금은 통상 외환 보유고와 함께 국제적 불확실성의 시대에 대비한 전통적인 자산 중 하나인 귀금속으로 각국은 적정량의 금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멕시코 중앙은행인 반시코(Banxico)도 이같은 의미로 금을 사들이고 있으며 올해 현재까지의 잔고는 작년 대비 12.4%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가 보도한 현물 가격에 따르면 어제 금 가격은 미국에서



트로이 온스당 2,330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세계금협회(World Gold Council)는 특히 미국 연방의 주요 금리가 곧 하락할 것이라는 예상과 중동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금의 자산 가치가 상승했다고 지적한다.

투자자들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자산으로 피난처를 찾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금 투자라고 금

속 추출 분야의 선두 기업들이 결성한 협회는 설명한다.

Rankia 라틴 아메리카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Humberto Calzada는 EL UNIVERSAL과의 인터뷰에서 “금의 경우처럼 Banxico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면 보유고도 증가하는데 현재의 시세가 최대치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만큼 외환 보유고를 늘린 효과와 같다”고 말했다.

현재, 멕시코는 국제 준비금의 일부로 통화 당국은 총 121톤의 금을 보유하고 있으며 가치로는 약 80억 달러에 달한다.

이 가치는 Agustín Carstens의 지휘 하에 달러 보유와 관련된 자산을 다양화하기 위해 Banxico가 100톤의 금을 전략적으로 구매했던 13년 전의 거의 두 배에 해당한다. 이전까지 금으로 표시된

보유액은 2억9400만달러였지만 이후 9억8500만달러로 늘었고, 2011년 3월에는 46억3800만달러에 달했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24년 초 멕시코 중앙은행은 금 보유고를 39톤 늘렸다.

한편, 멕시코의 외환보유액의 대부분은 외화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잔액은 1947억 달러에 이른다.

그 중 93%가 미국 통화로 표시되어 있으며 유로,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파운드화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멕시코는 160억 달러 상당의 IMF 특별인출권(SDR)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중앙은행은 국제 준비금을 형성하기 위해 다른 자산에 의존하지 않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통화를 획득하고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고 있다.

## 멕시코 취업 비자, "중국인이 가장 많이 발급 받았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 정부하에서 국립이민청(National Migration Institute)은 총 84,741개의 다양한 국적의 외국인 취업 비자를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비자는 외국인을 위한 취업허가증으로 지원자는 이미 멕시코내에 있는 고용주로부터 일자리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다.

관계자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23일까지 멕시코 정부는 투명성을 통해 확보한 2019~2024년 구인 비자 요청을 받았으며 INM(이민청)은 절차에 따라 135,744건의 취업 비자 신청 중 84,741건을 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비자 발급 중 중국 국적자



가 가장 많았는데 총 11,420건의 비자가 발급됐다. 이 중 남성은 8,840건, 여성은 2,580건이 승인 되었다.

중국인들의 멕시코 진출은 중국산 제품이 멕시코 시장을 장악하면서 두드러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멕시코로 화물을 운송하는 경우만 보면 컨테이너 수요가 2023년 1월 73,000TEU에서 2024년 1월 117,000TEU로 59.7% 증가했다.

또 다른 예는 중국산 자동차 진출이다. 멕시코 국내 판매 매출의 약 20%를 점유하고 있다.

뒤를 이어 콜롬비아 국적의 외국인이 8,221개의 비자를 가지고 있고, 아르헨티나에서 태어난 사람이 5,835개의 비자를 가지고 있으며, 인도에서 입국하는 사람이 5,668개의 비자가 발급됐다. 미국 국적은 사람 5424명이 멕시코에 일하러 왔고, 스페인 사람 4701명, 일본인 4277

명, 베네수엘라 사람 4143명, 한국인 3921명 순이다.

반면, 멕시코에서 취업 비자가 가장 적은 국가는 팔레스타인, 수단, 아랍에미리트 출신으로 각각 한 명 만 등록되어 있다.

전체 취업비자 신청자 13만 5744건 중 불승인 처리된 2만 345건, 취소된 신청이 2409건, 신청이 철회된 1686건도 눈에 띈다.

연간 신청 건수는 다음과 같다.

2019년에는 28,774건, 2020년에는 16,596건, 2021년에는 26,783건, 2022년에는 3만 264건, 2023년에는 31,350건, 2024년 첫 23일 동안 1,077건이 등록됐다.

멕시코 외교부는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2024년 말까지 3만 건의 취업비자 신청이 접수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 에콰도르와 단절한 멕시코, 다른 나라와 몇 번 외교 관계 끊었나?

며칠전 에콰도르 주재 멕시코 대사관에 강제로 경찰을 진입시켜 전부통령을 체포하면서 '외교관계 단절'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고 있는 멕시코와 에콰도르는 상당한 기간동안 복원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사관은 주재국 법의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치외법권 지역으로 그 자체로 상대국 영토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런 대사관에 당사국의 허락없이 합부로 침입한다는 것은 외교 관계상 넘을 수 없는 선을 침범한 것으로 멕시코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는 충분한 것이다.(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그렇다면, 멕시코는 그동안 몇 나라와 외교관계를 단절했을까?

호세 로페스 포르티요(José López Portillo) 전 대통령은 1979년 5월 20일 니카라과 아나스타시오 소모사(Anastasio Somoza) 정부와 외교 관계를 끊겠다고 발표했다. 당시 코스타리카 대통령 로드리고 카라소(Rodrigo Carazo)가 소모사 독재 정권이 겪고 있는 상황을 멕시코 대통령에게 알렸기 때문이다.

관찰자들에 따르면 Carazo는 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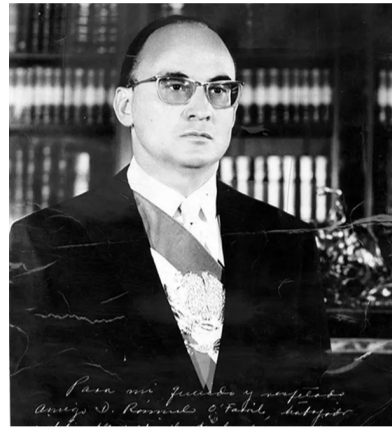
카라과가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으며 이는 López Portillo의 관심을 끌었고 즉시 Somoza 정부와의 관계를 끊기로 결정한 것이다.

비교적 짧은 기간인 2개월 후인 1979년 7월에 외교관계는 다시 복원됐다.

현재, 멕시코와 니카라과는 높은 수준의 정치적 대화와 우호의 틀 속에서 발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우호관계를 재확인함으로써 양국 간 돈독한 사이를 유지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도 불구하고 비판 성명조차 내지 않은 멕시코로 지금은 상상할 수 없지만 멕시코는 한 때 러시아와도 외교관계를 단절한 적이 있다.

1930년 1월 23일, 멕시코와 러시아는 러시아 대사관을 공산주의



음모와 선전의 중심지로 간주하여 이념 차이로 인해 관계를 끊었다. 당시 소련과의 관계가 단절된 주된 이유는 공산주의자들이 해외에 있는 멕시코 대사관과 영사관을 공격한 것과 멕시코 공산당이 조직한 시위로 인해 정부가 모욕을 당했기 때문이다.

당시, 포르테스 길(Portes Gil) 정부는 소련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면서 멕시코 주재 러시아 대사관 본부를 급습했다. 소련 관리들을 며칠 동안 구금하고 A. 마카르 대사의 집을 약탈한 뒤 추방했다.

상당한 시간인 12년이 지난 1942년 11월에 Manuel Avila Camacho 대통령에 의해 다시 복원된다. 멕시코와 스페인의 관계도 한 때는 험악했었다.

루이스 에체베리아(Luis Echeverría Álvarez) 전 대통령은 멕시코와 스페인 대결의 주역으로 국제기구에 프랑코 정권에 맞서 정치적, 경제적 공세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다.

1975년 스페인 프랑코 정권이 자국민 여러 명에게 사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퍼지자 멕시코는 외교 관계는 물론 경제, 철도, 해상, 항공, 우편, 전신, 무선 및 기타 통신 관계를 완전히 중단하기에 이른다.

이후 2년이 지난 1977 호세 로페스 포르티요(José López Portillo) 대통령에 의해 복원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

국가 간 갈등 예방 전략을 통해 협상을 수행하는 것 외에도 관계를 구축하고 유지, 실천하는 외교 관계는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국가 간 우호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무역, 안보, 교육, 기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물론, 기후 변화, 빈곤, 불평등과 같은 글로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 그리고 국가의 가치와 문화를 홍보하는 것으로도 외교는 국익 활동에 첨병인 것이다.

## 야당후보의 아들 만취행패 비디오 폭로에 여당후보 쉐인바움 "가족은 건들지 말라"

한창 들오는 멕시코 대선에서 안그래도 지지율 정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야3당 연합후보의 아들이 만취한 채 행패를 부리는 비디오가 폭로되면서 반전 분위기를 노리던 선거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는 이번 주 경쟁 후보인 소치틀 갈베스의 아들이 멕시코시티의 부유한 플라타 지역에 있는 클럽 밖에서 술에 취한 채 반호전적인 상태로 보안 요원과 대치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된 이후 적지 않은 파장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1위인 여당후보와 15% 정도로 뒤쳐지며 지지율 정체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후

보자의 아들의 비디오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것이다. 2023년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이 동영상에서 야당후보자의 아들인 후안 파블로 산체스 갈베스는 자기보다 두 배 정도 큰 경비원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경비원이 자신의 통과를 거부하자 동성애 혐오적인 욕설로 경비원을 무례하게 대하는 장면이 담겨 있다. 산체스 갈베스에 대해서는 나이를 포함해 알려진 바가 많지 않다. 그는 소치틀 갈베스의 두 자녀 중 막내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멕시코시티의 이베로-아메리칸 대학교에서 경영학 학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어머니의 선거운동에서 젊은 유권자들을 끌어들이는 일을 담당했지만 비디오가 나온 후 그 직책에서 물러났다.

동영상이 공개된 후 산체스 갈베스는 소셜 미디어 네트워크 X에 사과문을 올렸고, 이 사과문에서 그는 "안타깝게도 제 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동영상에 유죄를 인정하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고개를 숙였다. 해당 비디오가 폭로된 이후 여당후보인 쉐인바움은 이를 두고 "(비록 경쟁자이지만)가족은 건들지 말라"며 "선거에 출마한 사람은 후보자이며 정책에 이

슈를 맞추어야 한다"고 포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자신은 비디오를 올린 사람에 대해 동의하지 않으며 "동영상이 경선의 일부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라고 자신의 선거조직에 이같은 뜻을 전달했다. 이번 선거의 선두 주자인 쉐인바움은 집권당인 모레나당과 노동당(PT), 멕시코 생태녹색당(PVEM)으로 구성된 '역사를 계속 만들자' 연합의 후보로 당선이 유력시 되고 있다.

승자의 여유일수도 있지만 후보자의 인물 대 인물로 대결하자 여당후보의 발언에 많은 호응을 얻으면서 이제는 완전히 지지율 굳히기에 들어간 모양새다.



# 애물단지 된 국영 석유회사 Pemex, "폐쇄 기로에 섰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Andrés Manuel López Obrador) 대통령의 석유 프로젝트는 그의 정부와 이념, 그리고 정치인이자 사회 지도자로서의 역사적 투쟁에서 가장 중요했지만 비참하게 실패하면서 차기 정부에 가장 값비싼 유산 중 하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본격적인 대선운동에 접어든 멕시코 정치권에서도 이 문제는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 있다.

재투자가 되지 않아 노후화 된 시설, 낮은 생산성, 혈연, 지연으로 연결된 조직의 부패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것이 없어 운영할수록 적자가 발생하는 구조로 여당 후보는 물론 야당 후보인 Xochitl Galvez와 Jorge Alvarez Múñez도 "Pemex에 계속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사실상 이를 블랙홀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력한 후보인 여당의 Claudia Sheinbaum은 에너지 부문에 대한 자신의 계획에 대한 세부 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조심했지만 그의 캠페인 팀은 "국영 석유회사가 다른 자금 조달원을 찾고 청정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해 정책을 완전히 수정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Claudia 후보도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는 환경 운동가다. Pemex에서 이런 일이 계속되도록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현 대통령에 의해 총 책임자로 임명된 Octavio Romero Oropeza Pemex 대표는 Claudia



Sheinbaum이 집권할 경우 그에 게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높아 새로운 CEO에 의해 개혁작업에 나설 것으로 정치권은 예상하고 있다.

현 대통령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는 Octavio Romero Oropeza Pemex 대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소위 Petroleos 사업 계획에 명시된 목표 중 단 하나도 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유일한 성과는 기하급수적인 부채 증가를 멈춘 것인데, 6년 임기 동안 1조 멕시코 페소 이상의 자원을 투입하여 비교적 쉽게 달성할 수 있었던 기하급수적인 부채 증가를 막았다는 것이다.

Pemex의 부채는 현 정부 출범 전인 2018년 말에는 1,000억 달러를 넘지 않았지만, 현재는 약 1,060억 달러에 달한다. 이번 정부에서는 이를 대폭 줄이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목표가 달성되지 않았고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2024년으로 설정된 하루 260만 배럴의 탄화수소 생산 목표도 달성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작년 말 이 수치는 하루 160만

배럴이었기 때문에 엔리케 대통령 집권기의 마지막 해에 추출된 평균 170만 배럴보다 훨씬 낮아졌다.

정제 측면에서는 또 다른 큰 실패가 있는데, 타바스코(Tabasco)에 있는 도스보카스(Dos Bocas)의 올메카(Olmeca) 정유소 건설을 시작으로 80억 달러의 예산을 3배로 늘렸지만 아직 연료 정제를 시작할 정확한 날짜가 없는 상태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분야에서 가장 나쁜 결정은 연료 수요의 일부를 충당하는 텍사스의 Deer Park 정유소를 구입한 것이다. 왜냐하면 국가 시스템 정유소는 생산량의 50% 미만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급자족'과 '에너지 주권'이라는 오브라도르 대통령 개인의 이념적 신념에 따라 Pemex가 소유한 국내외 시설에서 연료를 정제하는 것은 연간 거의 1,700억 페소로 추산되는데 이는 국영 석유회사의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대선은 이같은 국영석유회사의 '밑빠진 독에 물붓기' 식의 자금 투입에 모든 후보가 비판하고 있

는데 해답은 거의 동일하게 '정유소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대선결과에 상관없이 Pemex는 일부 사업장을 중심으로 '폐쇄' 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것이다.

AMLO의 석유 정책의 종말은 심각한 족벌주의와 부패 행위의 결과이기도 하다.

멕시코의 진로와 역사를 정한, 국가에서 가장 중요한 기업이 가족회사처럼 운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Octavio Romero 현 CEO는 Cenagas와 함께 그의 전 파트너 Elvira Daniel Kabbaz에게 혜택을 제공했다.

대통령 AMLO의 개인 비서인 Alejandro Esquer는 그의 딸인 Carmelina를 Pemex Procurement International 자회사의 책임자로 임명하여 휴스턴에서 사업을 하도록 했고, 기업 행정 이사인 Marcos Herrera는 대통령 부인인 Beatriz Gutierrez Miller와 가족 관계를 맺고 있는 등 내부 파벌과 족벌은 엄청난 폐단을 가져오지만 워낙 역대부터 뿌리가 깊어 해결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특히, 민간의 참여를 막으면서 기술투자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성 저하가 심각한데 선진기술과 투명경영이 확보되어야만 위기에 처한 Pemex를 구할 수 있을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차기 정권을 누가 잡던 Pemex는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 소비자 보호단체 Profeco, 식당 식품점 집중단속

코로나 팬데믹이 잠잠해 지면서 뜸했던 식당가에 대한 단속이 최근들어 부쩍 늘어나 주의가 요구된다.

멕시코 소비자 보호기관인 프로페코(Profeco)는 식당이나 식

품점을 돌며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 대부분 날짜가 지난 음료수나 식품, 메뉴판과 실제 판매되는 음식의 동일여부 등 비교적 단순한 내용이지만 위반할 경우에는 벌금이나 심하면 영업정지를 당

할수도 있어 미리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가 있다.

반면, 식품점은 정식 수입여부를 들여다보면서 관련 서류를 요구하기도 해 납세필증이 부착되

지 않은 제품에 대한 벌금을 물리는 등 더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이외에도 소비자들로부터 직접적인 문제 제기를 받아 해당점을 방문하는 경우도 있어 평소 이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다.

## 멕시코 사회 관습으로 자리잡은 '집단린치', 현재도 진행형

멕시코는 살인 사건이 높기로 유명하다. 갱단들간의 충돌사건이 대부분이지만 일반인에 대한 사건도 상당하다. 그런데 직접적인 살인사건과 달리 가해자에 대한 집단 린치로 살해하는 사건 역시 갈수록 늘어나 우려를 낳고 있다.

며칠전 은(銀)의 도시로 유명한 타스코(Taxco)에서 이웃 어린이를 물놀이 시켜주겠다며 유인해 목졸라 살해한 후 풀어주는 댓가로 돈을 요구했던 여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집단으로 폭행,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있었다.

주민들의 공분을 산 이 사건은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로 일어났는데 경찰서로 호송을 위해 경찰차에 태워진 가해자를 주민들이 강제로 끌어내려 폭행,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이다.

가해자의 행위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이를 사법재판화 했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충격을 주고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례가 비단 이번만이 아닌, 멕시코에서는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 정부 공권력의 부재가 빚은 악습의 폐단이 관습화 되어 버린 것이다.

멕시코 근대사를 훑어보면 100여년 전부터 주민들의 집단린치 사건이 지속되어 왔는데 주요 사례로 등장하는 사건들이 몇 가지 있다.

1935년 3월, David Moreno Herrera 교사는 Aguascalientes에서 폭도들에게 린치를 당해 사망했는데 주민들이 집까지 찾아가 강제로 끌어낸 후 폭행으로 살해했으며 가구와 책에 불지르고 시신을 나무에 매달았다. 이 교사 외에도 1934년부터 1940년까지 푸에블라, 미초아칸, 할리스코, 케레타로, 과나후아토, 모렐로스, 치아파스와 같은 주에서도 린치를 당한 교사들은 상당했다.

이들의 범죄는 Cardenismo가 추진한 새로운 교육 정책인 사회주의 교육을 홍보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멕시코의 수많은 지역사회에서 사람들의 종교적 신념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Cardenismo는 1934년부터 1940년까지 멕시코를 통치했던 카르데나스 대통령이 주창한 것으로 이데올로기적 사회변혁운동, 일종의 사회주의 사상이다. 당시 언론은 린치에 관한 기사로 가득했는데 대부분 주민들을 옹호하는 식이었다.

즉, 살해된 교사들이 해로운 사상을 주입하고, 종교적 이미지를 모독하고, 심지어 교회가 이를 홍보하는 도구로 사용됐다는 비난을 퍼부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예술가 Leopoldo Mndez는 SEP(Secretaría de Educación Pública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200명 이상의 교사를 살해했다"라는 제목으로 극적인 석판화 컬렉션을 발표하기도 했다.

20세기 초반에는 출몰라(Cholula) 피라미드를 복원하러 간 기술자들이 그 위에 세워진 성당을 파괴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소문이 나면서 공개적으로 설교한 공산주의자와 개신교도, 농업 개혁을 위해 ejidos(대지주 농지)를 분할한 정부 요원에게 집단 린치를 가해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1947년에는 미초아칸 지역에 구제역이 돌자 정부 병사들이 소총으로 농민들의 소를 무자비하게 쏘아 죽게 만들자 마을에 종이 울리고 횃불이 켜지고 마체페(machetes 잡목 제거를 위한 긴 칼)칼과 몽둥이를 꺼내 들은 주민들이 몰려들었다.

농민들은 병든소를 도살하는데 대한 불만으로 수의사와 군인들

에게 린치를 가했는데 신체를 갈기갈기 찢는 폭력과 눈을 훼손하는 잔인한 폭력행위로 다수의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몰려든 주민은 500여명에 달했다.

폭력 전문 역사가인 Gema Klope-Santamaría는 혁명 이후 멕시코에서 일어난 린치의 역사를 눈부시도록 명료하게 정리한 책, 『폭력의 역사』(Grano de Sal, 2023)에서 대부분의 린치가 국가의 부재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정확히 그 반대, 즉 국가에 대한 방어의 한 형태로서 발생했다고 밝히고 있다.

즉, 그것은 저항의 한 형태, 국가 개입에 대한 반발이자 현상 유지를 위한 소란스러운 '폭도 살인'이라는 것이다.

역사학자는 또한 1930년에서 1960년 사이에 발행된 신문에서 두 번째 형태의 집단 처벌, 즉 시장, 경찰, 군인, 정치인 및 지역 지도자에 대한 린치는 주민들에 대한 학대, 조작, 착취 및 부패로 인한 '정의의 행위'로 해석하고 있는데 유명한 사건으로는 1959년 미초아칸의 Ciudad Hidalgo에서 지역 지도자 Aquiles de la Peña가 물에 독극물을 넣도록 지시했다는 소문이 퍼진 후 린치를 당한 사건이 있었다. 마을에는 술에 취한 사람이 한 명뿐이었지만, 수년간의 불만과 착취에 대한 분노로 이끌려온 폭도들은 지도자의 집을 습격하여 불태우고 총으로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한 사건은 지금도 회자되고 있다.

반면, 초법적 폭력을 합법화하는 방법으로 국가가 승인한 일종의 린치도 있었다. 공무원, 정부 대

표, 경찰관, 판사, 지자체장 및 기타 권위자들이 공개적으로 린치를 용인하고 장려한 경우를 말한다. 군중을 소환하기 위해 마을의 종을 울리거나 피고인을 감옥에서 데리고 나와 "통치 및 사회 통제의 한 형태"로 횃불을 들고 기다리는 폭도들에게 넘긴 것은 바로 그들이었기 때문이다.

멕시코는 피에 굶주린 범죄자, 강간범, 아동에 대한 범죄에 집단 린치가 많았는데 특히, 어린 소녀들을 강간한 범인들에 대해 이러한 린치를 "도덕적 관점에서도 용인할 수 있는 대응"으로 찬양하기도 한다.

"괴물"과 "자칼", "마녀", "나후알레스", "흡혈귀"에 대한 이야기는 사회적 범죄가 혐오감을 자극하고 증폭시켜 정의를 얻기 위한 불법적이고 편법적인 방법을 용인하게 만드는 데 기여(?) 했다는 지적이다.

Gema Klope-Santamaría는 "많은 범죄자들의 운명은 법이 아니라 혁명 이후 멕시코에 뿌리내린 처벌 문화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는 당국이 점점 더 쓸모없고 부패하며 정의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되는 상황에서 멕시코에서 주기적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 말한다. 즉, 현재도 진행형이라는 것이다.

역사가가 묘사한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서 소문이나 한 사람의 증언으로 촉발된 린치의 끈질긴 지속성은 충격적이다. 수백 명의 멕시코인이 무언가를 보거나 들었다는 이유로 린치를 당하기도 했다.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불과 6년 동안 멕시코에서는 1,600건 이상의 린치행위가 기록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한 국가가 바로 멕시코다. 전문가들은 그 원인을 '국가의 부재'에서 찾고 있다.

클로페-산타마리아의 책은 이러한 형태의 폭력이 국가 건설의 일부, 즉 사회적, 정치적 통제의 한 형태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는 실제로 폭력의 소용돌이 속에 있기 때문이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

숯불구이 전문점

# LA CASA COREANA

(구)한려수도가 '숯불구이 전문점' 으로 변신합니다



넉넉한 실내 공간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손님 접대에 안성마춤,  
각종 모임 환영! 귀한 손님을 위한 귀한 장소로 명성을 이어 갑니다!

**각종 모임 예약받습니다!**

- ▶ 단체 40석 ▶ 단체 20석 ▶ 오붓한 가족모임 6석
- ▶ 귀한 손님을 위한 VIP 12석

**예약 문의 Tel. 5514-8683 / Cel. 55-1801-2313**

Av.Chapultepec No.425 Col. Juarez (하림각 맞은편)

[www.lacasacoreana.com](http://www.lacasacoreana.com)

[www.restaurantecoreano.com](http://www.restaurantecoreano.com)

#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The 22<sup>nd</sup> Overseas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 3.27. ~ 4.01.

세계 곳곳에서 전하는 한 표  희망찬 대한민국 미래의 시작

Each vote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the beginning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filled with hope

**투표기간** 2024.03.27.~04.01.

**Voting Period**

매일 08:00~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The voting period may vary from one diplomatic mission to another.



선거정보 등 확인  
ok.nec.go.kr

**투표장소**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Voting Place**

The place designated by the Overseas Election Commission

**투표대상**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Eligible Voters**

Korean nationals enrolled in official lists of overseas absentee voters or overseas eligible voters

**준비물** 신분증명서 (단,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 함께 지참)

**Required Documents**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없음.  
※ 국적확인서류는 해당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  
(Overseas eligible voters should also prepare original copies of the documents required to identify the nationality.)

※ Additional identification certificates are not necessary if a photo is attached to the documents that identify the nationality  
※ Documents to identify the nationality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relevant diplomatic mission.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and Overseas Koreans Agency (oka.go.kr).



Mexico city / 멕시코시티

20년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賀琳覺 하림각  
Haringak

멕시코시티 유일한 중화요리 전문점

짜장/ 짬뽕/ 탕수육/ 깡풍기/ 양장피/ 만두 등 40여가지 메뉴

예약 문의

55-5511-3939 / 55-5511-2848

Praga 54 Col. Juarez CDMX Mexico city

[www.haringak.com.mx](http://www.haringak.com.mx)